

## V. '97年 經營 分野 10大 圖書 紹介

Business Week, 1997.

## 1. '97年 10大 經營 圖書

- 비즈니스위크지는 올해의 10대 경영 서적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음

書 名 (無順)	原 名	著 者
나의 인생	Personal History	캐서린 그래함
장님 비행, 날아가는 안전	Flying Blind, Flying Safe	매리 시아보 사브라 차트랜드
유일한 최선의 길: 프레드릭 윈슬로 테일러와 효율의 수수께끼	The One Best Way: Frederick Winslow Taylor and the Enigma of Efficiency	로버트 카니겔
매킨 대령의 인생과 전설	The Colonel: The Life and Legend of Robert R. McCormick	리처드 스미스
인사이드인텔 : 앤디그로브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칩회사의 등장	Inside Intel: Andy Grove and the Rise of the World's Most Powerful Chip Company	팀 잭슨
애플 : 음모와 병적인 자만과 사업상 대실책에 관한 숨겨진 이야기	Apple: The Inside Story of Intrigue, and Business Blunders	짐 칼튼
자동차 : 미국 자동차 업체의 한편의 드라마	Car: A Drama of the American Workplace	매리 월튼
살아있는 기업: 급변하는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한 습관	The Living Company: Habits for Survival in a Turbulent Business Environment	아리드 쥬
정신의 카르텔: 일본의 知的 폐쇄상점	Cartels of the Mind: Japan's Intellectual Closed Shop	이반 홀
리더십 엔진: 성공한 회사는 어떻게 리더십을 구축했는가	The Leadership Engine: How Winning Companies Build Leaders at Every Level	노엘 티키 엘리 코헨

## 2. 10大 圖書의 主要 內容

### (1) 나의 인생

- 워싱턴포스트誌(The Washington Post)의 발행인이었던 캐서린 그래함 (Katharine Graham)의 특이한 일대기를 그린 傳記임
- 그래함은 워싱턴 포스트지의 발행인의 딸로 성장하여, 사업을 물려받은 남편 필립 그래함과 23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였음
- 1963년 8월 남편이 자살을 하자 그녀는 경험이 없는 이 분야로 뛰어들어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뉴스업체로 성장시키게 됨
- 우아하고, 총명하며, 솔직한 문체로, 그래함은 지난 수 십 년간의 주요 사건들의 내면을 파헤치고, 많은 유명 인사들에 대하여 통찰력있는 묘사를 제공하였음
- 이 책은 “돈과 권력, 성과 스캔들, 비극과 용기에 대한 것들로 가득하며... 특이한 삶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이다”라고 평가됨

### (2) 장님 비행, 날아가는 안전

- 교통부의 검색관으로서 근무한 시아보 (Mary Schiavo)와 차트랜드 (Sabra Chartrand)가 미국의 연방 항공국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의 무능력을 질책하고 항공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조언을 제시하고 있는 도서임
- 저자들은 1996년 플로리다의 비행기 참사와 이를 축소시키려는 조정자들을 비판을 함
- 또한 무능력한 FAA가 비행기 회사의 창업을 촉진시키는 데에만 열심이었지, 대중의 보호를 위하여 안전 수칙을 강화하는 데에 소홀하였다고 지적함
- 각 항공사들의 상대적인 안전 수치와 여행자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들 및 여러 정책적인 제안들도 담고 있음
- 이 책은 “항공 산업과 이에 대한 정부의 규제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라는 평가를 받음

**(3) 유일한 최선의 길: 프레드릭 윈슬로 테일러와 효율의 수수께끼**

- 기업을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혁신을 불러일으킨 프레드릭 테일러에 대하여 카니겔 (Robert Kanigel)이 저술한 흥미로운 책임
  - Taylor는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채석업에서부터 철강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직업에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해결책이 있으리라고 믿음
  - 이러한 믿음은 과학적 관리법 또는 테일러주의로 정리되었으며, 이러한 관리 방식은 수공업이 조립 라인으로 대체되고, 많은 실업이 야기되는 산업 혁명기의 대표적인 사고로 정립됨
  - 테일러는 세세한 데에까지 원칙을 마련하는 능력과 굉장한 열정으로 유명한 데, 그가 노동자들을 노예로 전락시켰는가, 또는 노동자들의 보수를 증가시킨 해방가인가에 대한 평가가 논쟁의 대상이 됨
- 이 책은 “프레드릭 테일러에 대한 훌륭한 전기”라고 평가되고 있음

**(4) 매코믹 대령의 인생과 전설**

- 미디어 왕국을 지배하였고, 1914년부터 1955년까지 시카고 트리뷴誌(The Chicago Tribune)의 편집장이었던 매코믹 대령에 대하여, 경험있는 전기 작가 스미스(Richard Smith)가 저술한 傳記임
  - 흥미로운 영상들, 시대적인 기사거리 및 기이한 탐구 등으로 매코믹이 이끄는 트리뷴지는 다수의 독자를 확보하게 됨
  - 저자는 이러한 트리뷴지의 특성이 의도적으로 고안된 것이라기 보다는 강경론자이면서 철저한 고립주의자였던 매코믹의 인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묘사함
  - 예를 들어, 그는 단어 스펠링에 있어서의 간소화를 추구하여, ‘island’를 ‘iland’로 대체하도록 한 일화가 있음
  - 매코믹은 시대를 앞서갔으나 미국인들의 삶에 강한 각인을 새겨놓았음
- “매코믹의 신문이 편집자의 변덕스러운 면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였다”고 저자는 지적하고 있는데, 이 책은 매우 균형잡힌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됨

**(5) 인사이드인텔 : 앤디그로브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칩회사의 등장**

- 이코노미스트지(The Economist)와 파이낸셜 타임스지(The Financial Times)의 기자로 활동하였던 잭슨(Tim Jackson)이 인텔의 성공 뒤에 담긴 비밀들을 파헤친 작품임
  - 인텔사의 밝은 성공담 뿐 아니라 어두운 실패 경험과 어떻게 이를 극복하고 기술 혁신을 이루었는가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담고 있음
  - 인텔사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기술 개발과 AMD, 모토롤라 등의 경쟁사들과의 기술 경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저자는 인텔사를 치밀함이 감도는 회사로 묘사하며, 회사 내부의 기밀 보안대의 행동을 KGB와 같다고 묘사함
  - 이 책은 인텔사의 기술적인 면 뿐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인성적인 면모도 다루고 있는데, 저자는 인텔사가 그로브의 쾌활하면서도 명석한 성격을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함
- 이 책은 경영적인 면에 대한 분석은 다소 미흡하지만 “하이테크 산업에 있어서의 베일에 가려진 기업 내부에 대하여 멋진 조망을 하고 있다”고 평가됨

**(6) 애플 : 음모와 병적인 자만과 사업상 대실책에 관한 숨겨진 이야기**

-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의 기자였던 칼튼(Jim Carlton)이 애플사의 침체에 대한 비극적인 이야기를 저술한 책임
  - 개인용 컴퓨터가 대중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애플사의 침체 과정을 묘사하고 있음
  - 저자는 80, 90년대의 애플사의 침체의 원인을 잘못된 의사결정, 잃어버린 기회들, 그리고 인사와 관련된 문제들로 지적하며, 각 사례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설명을 덧붙이고 있음
  - 스티븐 잡스(Steven Jobs)의 공훈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와 같은 다른 거장들에 대한 부분도 포함됨
  - 이 책은 우수하고 총명한 인재들이 많은 상품을 개발해낼 수 있으나 반드시 성공을 유도하지는 않는다 사실을 보여주고 있음
- 본 도서는 “저자의 전력을 다하는 보고를 통하여 과거 애플사의 주요한 사건들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고 평가됨

**(7) 자동차 : 미국 자동차 업체의 한편의 드라마**

-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The Philadelphia Inquirer)의 기자였던 월튼(Mary Walton)이 1993년 포드 자동차사의 새로운 모델인 토러스의 설계 및 생산 과정 및 포드의 관리 방식을 파헤친 작품임
  - 다수의 경영 관련 문헌을 저술하였던 저자는 3년 가까이 포드사 내부 모습의 관찰에 의거하여, 엔지니어와 디자이너간의 갈등을 지적하고, 포드사의 위계적 관리 방식 등을 비판함
  - 특히, 상부 관리자의 많은 수가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포드사가 군대식 관리 방식에 빠져들게 된 점을 지적하고 있음
  - 1일 12시간 근무하는 포드사 직원들의 힘든 삶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제시하고 있어서, 포드사의 최고 경영자들은 그녀와의 접촉을 꺼렸다는 일화도 있음
- 이 책은 “유능하고 의도가 분명한 사람들로 가득한 거대 기업이 어떻게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가에 대한 비범한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됨

**(8) 살아있는 기업: 급변하는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한 습관**

- 셸 그룹(Royal Dutch/Shell)에서 은퇴한 저자 쉘(Arie de Geus)가 제시하는 급변하는 환경에서 조직의 생존을 위한 핵심 특성들을 담고 있는 책임
  - 다국적 기업의 평균 수명이 40~50년 임에도 불구하고 700년을 존재한 스웨덴의 스토라社(Stora)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분석하고 있음
  - 기업의 잠재력을 낭비한 것이 기업의 높은 사망율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장수 기업들을 분석한 1993년 Shell 연구를 인용하여, 장수기업들은 주요 자원들이 낭비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음을 지적함
  - 단명하는 기업의 관리자들이 기업을, 학습이 전파되는 “인간의 집단”으로 보지 않고 단순히 이윤 획득을 위한 기계로 보았다는 점도 저자는 지적하고 있음
- 이 책은 “기업 활동의 기반이 되는 기본 전제들에 대한 흥미로운 도전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됨

**(9) 정신의 카르텔: 일본의 知的 폐쇄상점**

- 대학 교수였던 홀(Ivan Hall)이 외국 전문가들에게 매우 방어적인 벽을 쌓아온 일본의 문화적 관습을 비판하는 책임
  - 저자는 법, 저널리즘, 연구 및 학문 분야에서 외국 기업들에게 일본이 폐쇄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외국인 변호사들에 대한 제한, 지식인 집단들의 배타적인 특권, 외국인에게는 종신직을 제공하지 않는 학계 등을 관찰하며, 저자는 “일본인들은 다른 나라에서 그들이 향유하는 공유의 혜택에 대하여 보답하려는 의도는 없이, 열정적인 확신을 갖고 그들의 이러한 장벽들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함
- 저자가 “[일본의] 카르텔이 반드시 경제적인 면에만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열정적으로 입증하고 있다”고 평가됨

**(10) 리더십 엔진: 성공한 회사는 어떻게 리더십을 구축했는가**

- 미시간 경영 대학의 티치(Noel Tichy)와 코헨(Eli Cohen) 교수가 쓴 최신 리더십 관련 책임
  - “모든 직위에서 지속적으로 리더들을 배출해온 기업들은 변화를 예측하고 관리할 줄을 아는 인재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생존할 것이다”는 점이 이 책의 주제임
  - 펩시코(PepsiCo)의 엔리코(Roger Enrico)나 어라이드시그날(AlliedSignal)의 보시디(Lawrence Bossidy)와 같은 최고층의 리더뿐 아니라, 서비스마스터 (ServiceMaster) 의 회계 담당자와 같이 비교적 덜 알려진 리더들도 소개하고 있음
  - 또한, 훌륭한 리더들은 다른 리더들을 육성하는 의무를 갖게 된다고 지적하며, 제너럴 일렉트릭(General Electric)이나 인텔(Intel)과 같은 기업들이 부하들의 리더십 기술을 배양하지 못한 관리자들을 어떻게 문책하는가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
- “부하들에 대한 조언을 최우선 위치로 놓음으로써 관리자들이 더욱더 영향력을 보유하게 된다는 점을 저자들은 지적하고 있다”고 평가됨

(장은미 : echang@cosmo.co.kr)